

## 관광투자유치 월간동향

<http://kto.visitkorea.or.kr/kor/biz/invest.kto>

## 04월 주요 이슈

## ■ 광역시 및 각 지역 신규 추진사업 현황

- 서울시, 뷰티산업에 2천억 투자...동대문 일대 거점 조성
- 인천시,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5년간 2천395억 투자
- 포항시, 호미반도 해양정원 세부 사업계획 수립...1천730억 규모
- 구례군, 오산케이블카 등 2천억원 규모 관광 프로젝트 추진
- 보령시,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 내년 본격 착공
- 영덕군, 삼사해상공원에 2025년까지 호텔·리조트 조성



## 04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 공공부문

## ■ 지역 특화콘텐츠 연계한 관광명소 조성 활발

- 자연/문화/역사 등 지역 내 특화콘텐츠를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지자체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 조성을 목표로 각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음
- 경기도는 지난 4일 국방부와 '캠프 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사업'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도는 379억원을 들여 캠프 그리브스 인근에 막사, 초소,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군 대체 시설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국방부로부터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넘겨받음. 도는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192억원을 들여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임
- 청양군은 칠갑호를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278억원을 들여 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군은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122억원을 들여 관람형 체험시설물 칠갑타워를 건립할 계획임.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 등을 설치하는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사업도 오는 9월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초부터 2024년까지 98억원을 들여 수상 엘리베이터와 수상 캠핑시설 등을 설치할 방침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중구 제2청사에서 인천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국제도시 관광명소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제3연륙교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질라인, 옛지워크와 씨사이드파크·송산 일대 야간경관, 파크골프장 등 체험형 관광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진행됨. 씨사이드파크·송산 주변 사업들은 내년까지, 제3연륙교 관광명소화는 2025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임

## 민간부문

## ■ 포스트 코로나 분위기 속, 각지 투자유치사업 활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분위기 속, 이에 대비하여 전국 각지의 투자유치사업 진행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임
- 목포시는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영디엘엠 피에프브이(주)와 사업협약을 체결함.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은 삼학부두 일원 총 20만㎡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임. 민간사업자가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3천 5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대형컨벤션과 총 900여실의 5성급 호텔·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광인프라 확충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충주시는 부동산 개발업체 원익엘앤디와 증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고 밝힘. 살미면 재오개·문화리 일원 122만㎡의 터에 들어설 증원종합휴양레저타운은 숙박시설, 레저문화시설 등 복합관광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됨.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70만명 이상 관광객 유입, 2조원 생산 유발, 3천200명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충주시는 밝힘
- 전남도는 체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1만 실 규모인 도내 호텔 리조트 숙박시설을 1만7천 실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힘. 여수웰린저파크 관광단지 등 6곳 1천944만 3천㎡를 지정해 숙박시설로 개발하고,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등 5곳에 대해 신규 조성계획을 마련해 총 3조 5천900억 원의 투자로 모두 6천986실을 새로 조성함. 도 관계자는 "전남의 부족한 명품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호텔, 풀빌라 등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속하겠다"고 말함



##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 □ '횡성을 이모빌리티 도시로'..2030년 장기 프로젝트 순항

- 800억 원에 달하는 자원 조달 방안 마련...연말 결정·고시
- 강원 횡성군이 203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도시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음
- 이 사업은 강원도와 횡성군의 신성장 동력인 이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횡성을 목계리 일원에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임
-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개발지원센터, 유관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이모빌리티를 활용한 테마파크와 화훼공원 등 관광인프라 등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이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지역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800억 원으로 추산하는 자원 방안도 마련함
- 군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신성장 동력인 이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횡성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냄



### □ 호미반도 해양정원 세부 사업계획 수립...1천730억 규모

- 경북도·포항시,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
- 경북도와 포항시는 13일 포항시청에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함
-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등 호미반도에 해양정원센터를 중심으로 총 1천730억 원 규모의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세웠음
- 해양정원센터는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환경·생태 연구 및 모니터링을 하며, 해양정원을 총괄 관리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예정임
- 해양생태체험과 해양레저안전교육을 통해 대중 접근성을 높이고 해양보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해중생태정원도 포함했으며, 이와 함께 블루카본생태학교 및 국립어린이해양생태관, 동해인문역사관 및 바다생태도서관, 환동해 해녀문화원, 연어물길해양생태숲, 해양생태마을, 환동해 친환경 탐방 버스 운영도 계획에 포함됨
- 경북도 동해안전락산업국 관계자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으로 기존 육지 중심의 정원 개념을 해양으로 확대하겠다"며 "호미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해안 경관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함

강력한 바다환경을 위한 해양정원센터를 중심으로 총 1730억 규모의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호미반도, 최첨단, 호미반도를 중심으로 4개 등 연평·지리산·대관령 등

구분	사업명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 원)	비고
해양정원 조성	해양정원센터	호미반도 해양정원센터	해양정원센터	800	신축
	해양정원센터	호미반도 해양정원센터	해양정원센터	250	신축
	해양정원센터	호미반도 해양정원센터	해양정원센터	150	신축
	해양정원센터	호미반도 해양정원센터	해양정원센터	150	신축
해양정원 조성	해양정원센터	호미반도 해양정원센터	해양정원센터	150	신축
	해양정원센터	호미반도 해양정원센터	해양정원센터	150	신축
	해양정원센터	호미반도 해양정원센터	해양정원센터	150	신축
	해양정원센터	호미반도 해양정원센터	해양정원센터	150	신축
	해양정원센터	호미반도 해양정원센터	해양정원센터	150	신축

### □ 울산시, 해저 거주공간 조성 추진...300억원대 국비 확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연구개발 착수..2026년까지 설치·실증
- 울산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함께 해저도시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힘
- 시는 해양수산부의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공모사업' 추진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5년간 국비 311억 원을 지원받음
- 시는 2026년까지 총 373억 원을 들여 '수심 50m, 5인 체류' 기술력 확보와 '수심 30m, 3인 체류' 실증이 가능한 모듈형 해저 거주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 육지와 완전히 독립된 바닷속 거주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해저공간 설계, 시공, 운영, 유지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연구를 단계별로 진행함
- 해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중 건설 로봇 등 첨단 해양플랜트 기술을 비롯해 전자통신, 에너지 저장·활용 등 다양한 분야 기술 융합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함
- 시는 해저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지진·해일 등 재난에 대비한 '해양 관측 예보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수중 데이터 센터' 운영, 해양문화 체험 관광 등의 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인천시,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5년간 2천395억 투자

- 마을기업 육성, 해상택시 도입, 해양복합레저단지 조성 등 5년간 총사업비는 2천395억 원 투입
- 인천시는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 섬을 만들기 위해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힘
- 주요 사업은 안정적인 양질의 상수원 확보,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구축, 천일염 활용 마을기업 육성, 해상택시 도입, 연륙교·연도교 건설, 해양복합레저단지 조성 등이며, 5년간 총사업비는 2천395억 원임
- 시는 섬 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청양 칠갑호 관광지로 변모..2024년까지 278억원 투입

- 칠갑타워·스카이워크·출렁다리·수상 캠핑시설 등 설치
- 충남 청양군은 농업용 저수지인 칠갑호를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278억 원을 들여 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힘
- 군은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122억 원을 들여 지상 6층(건물면적 2천722㎡) 규모의 관람형 체험시설물 칠갑타워를 건립할 계획임
- 칠갑호 위에 이색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수상관광 조성사업도 추진되며, 내년 초부터 2024년까지 98억 원을 들여 수상 캠핑시설 등을 설치할 방침임



##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 울주 삼동면 일대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로 만든다

- 골프장·호텔·각종 휴양문화시설 조성..."연간 200만 명 방문 예상"
-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힘
- 조일리 일원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영남 알프스, 신불산 자연휴양림, 반구대 암각화 등 서울산권 관광명소 지리적 중심에 있어 관광단지 지정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됨
- 시와 울주군은 관광객 수요에 맞는 호텔, 콘도 등 고급 숙박시설과 골프장, 스파·워터파크 등 각종 휴양문화시설을 들어 사계절 즐기는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임
- 시 관계자는 "부산, 대구, 창원 등 대규모 배후시장을 기반으로, 최신 관광 흐름을 선도하는 영남권의 관광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각오를 다짐



### ■ 영덕 삼사해상공원에 2025년까지 호텔·리조트 조성

- 2025년까지 1천245억 원 들여 강구면 삼사리에 '삼사 해상빌리지 호텔&리조트' 조성
- 경북 영덕 삼사해상공원에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임. 5일 영덕군에 따르면 올진산업은 2025년까지 1천245억원을 들여 강구면 삼사리에 '삼사 해상빌리지 호텔&리조트'를 만든다고 밝힘
- 이 호텔과 리조트는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로 객실 341개실과 풀, 컨벤션센터 등 부대시설로 구성됨
- 군 관계자는 "해상케이블카, 대관람차에 이어 호텔과 리조트까지 유치함으로써 삼사해상공원 일대가 영덕 관광 1번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 강원 고성에 해양 심층수 활용 자연드림파크 조성

- 2025년까지 3천억원 투자...1천명 신규 고용 예정
- 강원도와 고성군은 13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아이쿱 소비자 생협연합회, 자연드림 유기농 치유연구재단, 테트라팩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맺음
- 기업은 고성군 일원 66만㎡에 3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고성 해양 심층수 산업 클러스터'(이하 고성자연드림파크)를 조성하고 1천 명을 고용할 계획임
- 산업단지에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주류, 간장, 젓갈 등의 제조업체가 입주하고 치유단지에는 관광휴양시설, 생활치료센터가 들어섬
- 아이쿱 소비자 생협연합회는 전남 구례, 충북 괴산, 경북 청도에 이어 강원 고성에 네 번째 투자를 결정함
- 한의원 등 의료시설을 운영 중인 자연드림유기농치유 연구재단은 고성자연드림파크 내 치유 시설에 투자할 예정임
- 글로벌투자통상국 관계자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해양 심층수의 우수성을 더욱 알리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성 자연드림파크가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함



## ■ 보령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 내년 본격 착공

- 총 사업 면적 96만6천748㎡, 투자비 7천600억 원의 국내 최대 규모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
- 28일 보령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소노인터내셔널, 충남도 등 관계기관과 올해 안으로 신속한 협의를 거쳐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할 계획임
-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는 총 사업 면적 96만6천748㎡의 국내 최대 규모 해양관광 리조트이며, 7천600억원을 투자해 펜션단지와 리조트·레저체험지구 등을 조성할 예정임
- 시는 해저터널 개통으로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원산도에 대명소노리조트가 들어서면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침체한 지역 관광산업뿐 아니라 인근 섬을 포함한 중부 서해안 해양관광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함
- 시는 원산도 주변 관광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인근 효자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등 섬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오섬 아일랜드'로 조성할 계획임
- 시 관계자는 "해양관광 거점으로 가장 중요한 원산도에 대명소노리조트가 조속히 들어서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냄



## ■ 구례군, 오산케이블카 등 2천억원 규모 관광 프로젝트 추진

- 오산권역 관광 활성화...2.34km 길이 케이블카 2025년 설치 목표
- 구례군은 지난달 18일 열린 구례 오산케이블카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대원플러스그룹의 자회사인 다우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확정함
- 오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구례읍 봉서리(하부 정류장)에서 섬진강을 건너 오산 사성암 인근(상부 정류장)까지 2.34km 구간으로 계획하고 있음
- 케이블카 조성으로 1천20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74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구례군은 오산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오산권역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임
- 구례군은 ▲ 체류형 관광시설, 섬진강생태공원 등 자연생태관광지 ▲ 스카이라이프, 스카이스터 등 레저 활동 ▲ 오산대불, 사성현 테마스토리파크 등 불교 주제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할 방침임
-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렴해왔다"며 "오산권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례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내비침





## 2022년 관광동향 분석 (2022년 0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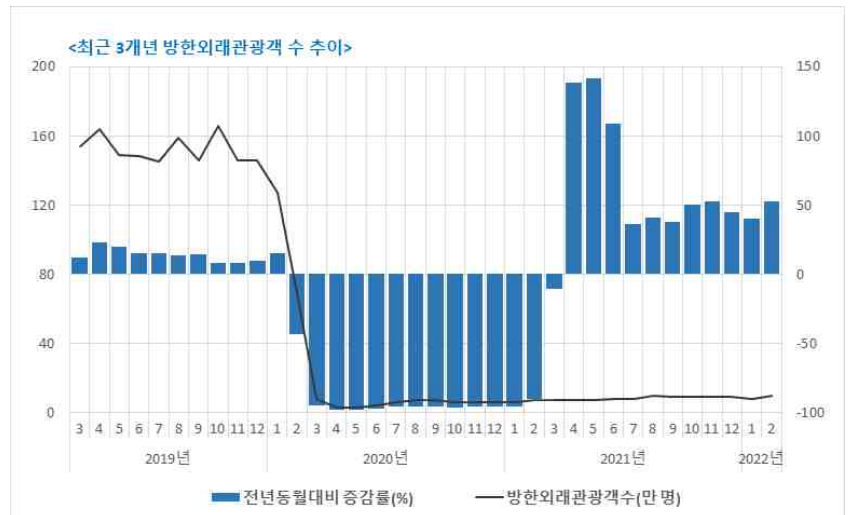
### 방한외래관광객

- 2월 방한외래관광객 99,999명, 전년동월(65,582명) 대비 52.5% 증가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20년	2,519,118	-85.6
2021년	967,003	-61.6
'22년 02월	<b>99,999</b>	<b>52.5</b>
2022년	181,850	-81.2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단위: 천 명, %)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2,934명 (10.5% 감소)
- 중국관광객 16,752명 (39.8% 증가)
- 미국관광객 15,845명 (41.3% 증가)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20년	431(-86.8)	686(-88.6)	220(-78.9)	167(-86.8)	89(-87.2)	73(-78.7)
2021년	15(-96.5)	170(-75.2)	204(-7.4)	4(-97.5)	1(-98.6)	33(-55.0)
'22년 02월	<b>3(70.7)</b>	<b>17(39.8)</b>	<b>16(41.3)</b>	<b>0.9(93)</b>	<b>0.3(110.9)</b>	<b>3(35)</b>
2022년	4(-73.2)	26(-84.6)	31(-84.6)	1(-71.8)	0.4(-72.3)	6(-80.8)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단위: 천 명, %)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55,736명 (52.7% 증가)
- 미주 19,869명 (50.1% 증가)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20년	1,918(-86.6)	43(-82.9)	271(-79.8)	215(-80.4)	30(-86.0)	14(-76.1)
2021년	510(-73.4)	37(-14.7)	242(-10.9)	147(-31.4)	6(-81.7)	12(-15.9)
'22년 02월	<b>56(52.7)</b>	<b>4(73.7)</b>	<b>20(50.1)</b>	<b>17(50.1)</b>	<b>0.9(138.3)</b>	<b>2(47.8)</b>
2022년	99(-80.6)	7(-82.1)	40(-83.6)	31(-79.2)	2(-69.6)	3(-77.2)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 국민해외관광객

▶ 2월 국민해외관광객 112,722명, 전년동월(68,213명) 대비 65.3% 증가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20년	4,276,006	-85.1
2021년	1,222,541	-71.4
<b>'22년 02월</b>	<b>112,722</b>	<b>65.3</b>
2022년	260,156	-78.7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 ■ 한국관광수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sup>1)</sup>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sup>1)</sup>	관광수지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2019년	21,506	(12.4)	1,185	29,261	(-7.2)	1,019	-7,349
2020년	10,181	(-50.9)	4,042	13,356	(-54.4)	3,124	-3,175
2021년 <sup>P</sup>	10,282	(1)	10,633	13,851	(3.7)	11,330	-3,569
<b>'22년 02월<sup>P</sup></b>	<b>786</b>	<b>(14.9)</b>	<b>7,859</b>	<b>1,062</b>	<b>(21.4)</b>	<b>9,421</b>	<b>-276</b>
2022년 <sup>P</sup>	1,534	(-85.1)	8,500	2,057	(-85.1)	8,085	-523

주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치를 의미

1)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 해당 관광동향 분석 자료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내 관광객통계/국제관광통계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기재함.